

2019년 5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종목 호재에 힘입어 상승 지속 MS(+2.31%)와 소니, 머크(+2.04%)와 인텍(+1.33%) 협력 발표

미국 반도체 업종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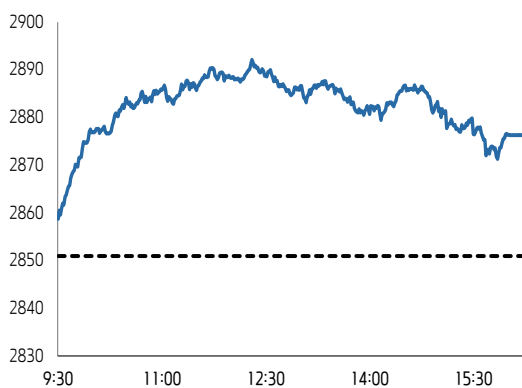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의 정보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 및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 특히 개별 기업별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대형기술주, 제약업종, 금융업종이 상승 주도(다우 +0.84%, 나스닥 +0.97%, S&P500 +0.89%, 러셀 2000 +0.58%)

미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감. 그러나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개별 업종별 호재성 재료에 의한 상승이라는 종목장세의 특징이 컸음.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8%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은 부진. 이는 화웨이 관련 규제에 따른 것으로 추정. 네오포토닉스(-20.63%)가 급락 했는데 화웨이가 네오의 가장 큰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매출 급감 우려가 높다며 20% 넘게 급락. 더불어 자일링스(-7.27%), 스카이웍(-6.04%), 퀴보(-7.14%), 쉘컴(-4.00%) 등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화웨이는 글로벌 네트워킹 및 5G 인프라에서 약 20-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화웨이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 퀴보는 매출 중 10~15%, 쉘컴과 스카이웍, 자일링스는 약 10%가 노출. 이런 가운데 화웨이는 미국의 행동으로 일본과 한국의 칩 제조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물론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음. 마이크로소프트(+2.31%)가 스트리밍 게임과 관련 소니와 전략적 협력 관련관계를 맺었음. 특히 이번 계약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Azure의 강화를 의미하며, 향후 클라우드 시장관련 아마존(+1.95%), 알파벳(+1.17%)의 Web Services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 이는 서버 D램 수요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7.69	-1.20	홍콩항셱	28,275.07	+0.02
KOSDAQ	717.59	-1.65	영국	7,353.51	+0.78
DOW	25,862.68	+0.84	독일	12,310.37	+1.74
NASDAQ	7,898.05	+0.97	프랑스	5,448.11	+1.37
S&P 500	2,876.32	+0.89	스페인	9,304.30	+1.39
상하이종합	2,955.71	+0.58	그리스	726.51	+0.50
일본	21,062.98	-0.59	이탈리아	21,151.80	+1.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제약, 금융, 대형기술주 상승 주도

제약업종은 머크(+2.04%)가 약물개발 업체인 인텍 제약(+1.33%)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J&J(+0.95%), 화이자(+1.19%), 브리스톨마이어스(+1.05%) 등 제약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JP 모건(+1.28%), BOA(+1.06%), 씨티그룹(+1.71%) 등 금융주는 EU집행위원회가 외환시장 조작과 관련 12억 달러 벌금 부과 했으나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오히려 상승했다. MS(+2.31%)는 소니와 스트리밍 게임을 위해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이 영향으로 클라우드 관련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며 아마존(+1.95%), 알파벳(+1.17%)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시스코시스템(+6.66%)은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급등했다. 반면 네오포토닉스(-20.63%)가 급락 했는데 화웨이가 네오의 가장 큰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매출 급감 우려가 높다며 20% 넘게 급락했다. 더불어 자일링스(-7.27%), 스카이웍(-6.04%), 퀴보(-7.14%), 쉘컴(-4.00%), 마이크론(-2.86%), 아나로그디바이스(-2.96%) 등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NVIDIA(+0.38%)와 AMAT(+0.39%)는 시간 외로 각각 5%, 4%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4%	대형 가치주 ETF(IVE)	+0.64%
에너지섹터 ETF(OIH)	+0.78%	중형 가치주 ETF(IWS)	+0.65%
소매업체 ETF(XRT)	+0.05%	소형 가치주 ETF(IWN)	+0.47%
금융섹터 ETF(XLF)	+1.01%	대형 성장주 ETF(VUG)	+1.04%
기술섹터 ETF(XLK)	+0.92%	중형 성장주 ETF(IWP)	+0.9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5%	소형 성장주 ETF(IWO)	+0.72%
인터넷업체 ETF(FDN)	+1.62%	배당주 ETF(DVY)	+0.47%
리츠업체 ETF(XLRE)	+0.5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4%
바이오섹터 ETF(IBB)	+1.04%	미국 국채 ETF(IEF)	-0.20%
헬스케어 ETF(XLV)	+0.78%	하이일드 ETF(JNK)	+0.27%
곡물 ETF(DBA)	+1.45%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1.41%	Long/short ETF(BTAL)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3.19	+0.38%	+0.41%	-5.27%
소재	343.72	+1.34%	+0.97%	-4.94%
산업재	636.37	+0.87%	-0.46%	-2.46%
경기소비재	926.99	+1.00%	-0.30%	-1.85%
필수소비재	594.62	+0.75%	+2.27%	+1.55%
헬스케어	1,023.65	+0.75%	-0.40%	+3.16%
금융	448.19	+1.10%	-0.99%	-1.44%
IT	1,331.12	+0.99%	-0.05%	-2.23%
커뮤니케이션	165.55	+0.96%	+0.96%	-0.11%
유틸리티	295.53	+0.58%	+2.42%	+1.70%
부동산	226.77	+0.53%	+2.68%	+3.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9% MSCI 신흥 지수 ETF 도 0.49%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536 계약)에 힘입어 1.05pt 상승한 267.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1.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MS 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강세를 보였다. 이는 향후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8% 하락 했다. 이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로 관련 이슈에 노출이 큰 개별 반도체 업체들의 부진에 따른 것이기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이미 관련 이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 증시 마감 후 N 비디오와 AMAT 가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로 4~5%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의 추이가 주목된다. 다음주 EU 의회선거를 앞두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파운드화 또한 브렉시트 관련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달러화의 강세로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EU 의회 선거와 브렉시트 관련 이슈는 다음주에 이벤트를 소화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된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는 향후 유로화 강세 요인이다. 파국적인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우려를 완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달러/원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KOSPI 영향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개선

4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116.8 만건)이나 예상치(120 만건)을 상회한 123.5 만건으로 발표되었으며, 허가건수도 전월(128.8 만건)을 상회한 129.6 만건으로 발표되는 등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다.

3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8.5)이나 예상치(9.3) 보다 양호나 16.6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고용지수(14.7→18.2)는 개선되었으나 신규수주(15.7→11.0)은 둔화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지정학적 영향으로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불구 중동 리스크 여파로 상승 했다. 특히 사우디 송유시설에 대해 공격한 예멘 반군에 사우디가 공습을 단행한 점이 영향을 줬다. 한편, 사우디는 예멘반군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발표 하며 이란과의 마찰이 격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다음주 있을 EU 의회 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 승리하면 이를 이용해 지출 관련 EU 규제를 해소시키겠다고 주장한 점이 부담이다.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6 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할 것이라고 발표 하자 약세를 보였다. 만약 강경파가 당선될 경우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주택지표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도 상승세 지속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이 확장기에 너무 타이트 했다" 라고 주장했으며, 브레이너드 연준이사는 "소비자신뢰, 고용시장이 견고하며, 완만한 인플레이 상승은 환영할 만 하다" 라고 주장 했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2.68%, 철근도 1.5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2.87	+1.37	+1.90	Dollar Index	97.831	+0.27	+0.47
브렌트유	72.62	+1.18	+3.17	EUR/USD	1.1173	-0.25	-0.37
금	1,286.20	-0.89	+0.08	USD/JPY	109.84	+0.22	+0.09
은	14,539	-1.84	-1.58	GBP/USD	1.2796	-0.38	-1.68
알루미늄	1,860.00	+0.27	+3.39	USD/CHF	1.0101	+0.14	-0.48
전기동	6,100.00	+0.25	-0.03	AUD/USD	0.6891	-0.53	-1.40
아연	2,637.00	+0.42	+1.03	USD/CAD	1.3463	+0.19	-0.10
옥수수	379.00	+2.57	+7.29	USD/BRL	4.0413	+0.99	+2.36
밀	467.00	+4.07	+8.73	USD/CNH	6.9282	+0.34	+1.33
대두	839.75	+0.51	+3.32	USD/KRW	1191.50	+0.24	+0.99
커피	91.65	+0.38	+0.88	USD/KRW NDF1M	1191.11	+0.45	+1.0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396	+2.30	-4.61	스페인	0.902	-5.00	-8.40
한국	1.821	-3.90	-3.60	포르투갈	1.075	-4.60	-3.70
일본	-0.061	-1.00	-1.30	그리스	3.452	-9.20	-7.20
독일	-0.095	+0.30	-4.80	이탈리아	2.683	-6.30	+0.20